

오다이라 시다레구리

오다이라(大平) 관음당 경내에 있다.

높이 약 10.5m, 눈높이 둘레 1.6m, 가지길이 약 8m의 참나무과 거목이다.

원줄기는 '**<**' 모양으로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 있으며, 이따금 위쪽으로 세 줄기의 굵은 가지가 좌우로 휘면서 뻗고, 중간 가지와 잔가지는 구불구불 길게 늘어져 그 모습이 진기하다.

이 나무는 에도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 무렵에 주민들이 돈 벌이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의 다쓰노마치(오노텐구하라 또는 속칭 오노이누마토게)에서, 너무 희귀한 나무였기에 고향의 관음보살 앞에 봉납하고자 어린 나무를 캐와서 심은 것이라고 전해진다.

'기소무라 문화재 탐방'

(1986.3.25 발행 기소무라 교육위원회)에서